▌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1호 [2010. 6] : 267～288

# 아르게다스와 꼬르따사르 논쟁에 나타난 보편성과 지역성

이 성 훈*
(Lee, Seong-Hun)

〈Abstract〉

## El estudio sobre el telurismo y el cosmopolitanismo expresados en la polémica entre José María Arguedas y Julio Cortázar

Este artículo se trata de la polémica entre José María Arguedas y Julio Cortázar, quienes son unos de los más destacados novelistas de los años 1960. Aunque Julio Cortázar ha participado en muchos otros debates, esta polémica(1969-1971) es la más interesante porque nos muestra una estructura por la cual nos hace entender el sentido del boom y las polémicas posterioes desde varios puntos de vista. En especial, esta polémica está relacionada con el problema de cómo evaluar el éxito del boom.

En este trabajo investigamos el sentido del debate entre Arguedas y Cortázar enfocándonos en algunos temas tales como el telurismo, la técnica narrativa, lo intelectual. Si bien hay unas críticas de que esta polémica es absurda o inútil, vale la pena investigar profundamente considerando que ellos representan el ambiente intelectual de los años 1960 hasta los principios de los años 1970. A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조교수
E-mail: anselmus@snu.ac.kr

través de este estudio, podemos observar cómo continúa el conflicto crónico entre la actitud universalista y la americanista, y entender el sentido del telurismo o indigenismo.

Es decir, la polémica está repitiendo el motivo principal de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modificado conforme a las condiciones temporal y espacial; en este caso, las condiciones son la revolución cubana y el boom.

[Key Words: Arguedas/ Cortázar/ Polémica/ Telurismo]
[주제어: 아르게다스/ 꼬르따사르/ 논쟁/ 토속성]

## Ⅰ. 서론

라틴아메리카 붐소설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명인 아르헨티나 태생의 훌리오 꼬르따사르와 페루의 호세 마리아 아르게다스 사이의 논쟁은 1968년부터 1971년 사이에 진행되었다. 꼬르따사르는 여러 논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이 논쟁은 이후의 다른 지적 논쟁을 이해하고 당대 붐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지적 태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라틴아메리카 문학, 더 나아가서는 문화를 관통하는 유럽지향성과 지역성과의 대립은 각 시기에 따라 그 성격과 색깔, 또 강도를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존재해오고 있다. 독립이후부터 시작된 내셔널리즘은 영토 내의 주민들을 이른바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동질화 기제를 사용했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국민국가가 그렇게 고전적인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따라서 실제로 내셔널리즘이 국민 만들기에 있어

얼마나 유효한 수단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문화적인 층위에서 라틴아메리카라는 일정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국민국가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내셔널리즘이 구성원들에 동질감으로 부여하기 위해 타자와의 차이를 강조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면, 라틴아메리카에서 내셔널리즘은 유럽적인 문화와의 차별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적인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즉 라틴아메리카에서 개별 국민국가의 정체성은 유럽과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등 두 가지 층위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독립이후 여전히 남아 있는 유럽 지향적인 가치에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라틴아메리카적인 정체성 내에서 개별 국민국가가 갖는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독립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독자적인 지역 문화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낭만주의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물론 모데르니스모에 이르러 라틴아메리카의 독자적인 미학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만, 모데르니스모 역시 유럽의 미학적 자장 내에서 그리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후 20세기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유럽 지향적인 태도와 지역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입장간의 긴장과 갈등이 시기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서 존재한다. 이런 긴장과 갈등은 1960년대 붐 소설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붐 소설을 라틴아메리카적인 사유 방식과 유럽적인 소설형식의 결합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이전의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미학적 전범을 통해 일정한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접이(transculturación)적 설명 방식 역시, 유럽 출판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당시 붐소설의 성취를 설명하려는 입장에 따르면 그리 유럽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다. 또한 붐 소설의 일정한 문학적 성취라고 말하는 문학적 테크닉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렇듯 1960년대 붐소설이라는 라틴아메리카 소설 문학의 세계사적인 성취 이면에는 이런 문학적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잠재해 있다. 이 갈등의 주된 논쟁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르게다스와 꼬르따사르의 1960년대 논쟁이라 할 것이다. 이 논쟁에서 우리는 보편성과 지역성 논쟁을 통해 유럽지향적인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해묵은 문제, 그리고 토속성(telurismo) 혹은 인디헤니스모에 대한 강조와 문학적 테크닉, 더 나아가 글쓰기가 갖는 의미에 대한 대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 시기 문화지형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Ⅱ. 문학적 배경 및 논쟁의 경과

이 논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두 명의 문학적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꼬르따사르의 문학 여정에 있어 파리 체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그의 문학관은 37살이었던 1951년 파리에 도착한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변화와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한다(Kohut 1985, 2).[1] 파리 도착시기에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망명이 갖는 의미,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작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객관적인 정치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

1) 1985년 발간된 *Inti:Revista de literatura hispánica*의 22호와 23호 합본호는 "Cort'azar en Mannheim" 특집을 마련한다. Karl Kohut는 여기에 "El escritor latinoamericano frente a los problemas y conflectos de la actualidad"이라는 글을 발표한다. 이 논문의 꼬르따사르에 관한 전기적 요소는 이 글을 참조하고 있다. Karl Kohut는 그의 지적 여정을 도피, 의식화, 갈등의 시기, 화해라는 핵심어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 내주의 페이지는 이 논문 pdf 파일의 페이지를 지시한다.

게 된다. 따라서 망명에 대한 그의 고민은 자신의 개인사에 대한 글쓰기인 동시에, 당대 정치상황에 대한 기록으로도 읽힐 수 있다. 1949년 처음 유럽을 방문한 이후, 그는 페론 치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적 영역의 위선을 견딜 수 없어 결국 아르헨티나를 떠나 파리에 정착하게 된다. 정치적 관심보다는 문학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던 그의 파리 행은 당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극히 문학적이지 못한 사회현실에서의 도피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의 도피는 좁게는 아르헨티나라는 자신의 모국에서 도피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라틴아메리카라는 당대의 정치 상황과 현실 역사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이런 그의 개인주의적인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주지하다시피 쿠바 혁명이었다. 쿠바 혁명을 통해 그는 "라틴아메리카 인으로서의 자신의 진정한 조건"을 발견했다. 파리에서의 경험을 그는 "다마스쿠스의 길, 커다란 존재론적 떨림(camino de Damasco, la gran sacudida existencial)"이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쿠바혁명이 가져다 준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그의 세계관에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정치 현실에 대한 그의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적 태도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즉 정치적 경향성을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표출해내는 '당파적' 문학과 달리, 그는 지속적으로 서사의 미학적 혁신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사회주의라는 현실의 정치적 당파를 선택하고 있으면서, 또한 미학적 선택으로서 작품 속에서 서사적 실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이런 미학적 태도는 자주 도그마적인 문학관과 대중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 입장들과 충돌했다(Kohut 1985, 3).

이러한 미학적 입장으로 인해 그는 문학 속에서 토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나 예술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비판하게 된다. 이런 비판

중에서 토속성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글에서 살펴볼 아르게다스와의 논쟁이었다. 또한 미학적 형식의 문제를 두고 오스까르 꼬야소스(Oscar Collazos)와 논쟁을 벌였고, 1968년 5월 이후 파리의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1970년 개최된 토론회에서 청년학생들과 논쟁을 진행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꼬르따사르는 작가의 무기는 글쓰기라는 주장을 펼친다. 작가에게 당면현실에 대해 즉각적인 방식의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문학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다음 논쟁은 카스트로로 대표되는 쿠바 혁명 체제와의 대립이다. 그는 쿠바 혁명이후 카스트로 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또 카스트로를 새로운 인간형으로 이상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이른바 빠디야 사건을 통해 달라진다. 주지하다시피, 빠디요 사건을 비판하는 54명 지식인에 끼어 성명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꼬르따사르는 혁명의 대의에 동참하는 참여적 지식인에서 카스트로가 말한 "자유주의 부르주아" 지식인 중 한 명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쿠바 정부와의 대립 속에서 꼬르따사르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꼬르따사르는 진정한 의미에서 '망명객' 신분이 되게 된다. 물리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쿠바혁명의 이데올로기에서 배제되었다는 의미에서 말이다(Kohut 1985, 8-9).

꼬르따사르는『마누엘의 책Libro de Manuel』(1973) 이후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한다. 쿠바 정부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전의 경향과는 차별되는 예술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모색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모색은 인권침해와 고문 등 라틴아메리카의 억압적 상황을 민중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전환은 일정하게 카스트로의 비판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데올로기에 경도되거나 당면 정치현실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정치

적 참여와 지적 자유를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따라서 1960, 70년대 꼬르따사르가 진행한 일련의 논쟁은 라틴아메리카 밖에서의 글쓰기, 망명, 지식인들의 이데올로기 투쟁, 서사 기법의 근대화 등 당대 라틴아메리카 문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절합 해 내고 있다(Kohut 1985, 10-11).

꼬르따사르보다 3년 빠른 1911년 페루에서 태어난 아르게다스는 꼬르따사르와는 전혀 다른 문학적 선택을 하게 된다. 아르헨티나라는 유럽 지향성이 두드러진 곳에서 지적세례를 받았던 꼬르따사르와는 달리, 원주민의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던 페루라는 공간적 조건은 아르게다스의 문학적 성향을 일정부분 규정짓는다. 특히 아르게다스가 성장했던 시기는 페루가 본격적으로 근대화를 경험하고, 그 영향으로 기존의 전통사회와 전통 문화가 해체되던 시기였다. 특히 근대화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원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층위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런 페루라는 공간적 조건과 근대화 시기라는 시간적 조건이 그의 작품에서 주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배경에서 원주민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그의 천착이 인디헤니스모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아르게다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타나는데, 그가 "지역주의를 극복했고, 문학적 인디헤니스모를 초월하여, 생의 경험과 깊은 사회 의식을 통해 비판적이자, 진화적이고 혁신적인 서사를 창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Sales Salvador 2004, 313-314). 이는 앙헬 라마가 말하는 아르게다스의 소설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문화접이라는 개념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접촉을 통해 형성된 공간 속에서 작가가 선택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의미한다. 아르게다스는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세계들 사이의 경계적이고 사이 공간에서 새로운 문학적 세계를 창조해 낸 것이다. 이처럼 아르게다스는

페루의 현실과 예술적 표현을 서로 결합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작가로, 원주민 문화가 근대화라는 격랑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원주민 문화를 통한 보편적인 문화 형성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가 위치한 시공간적 배경으로 인해 아르게다스는 "께추아 문화의 존속"과 "부정할 수 없는 사회 근대화" 사이의 고통스러운 자극을 경험했다(Sales Salvador 2002, 1). 이런 께추아 세계와 근대 세계라는 두 개의 대립적인 요소가 아르게다스의 소설 세계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아르게다스의 소설세계는 백인 지배 문화와 께추아라는 피지배 문화 사이의 대립이라는 단선적인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 즉 그의 작품 세계는 "단선적인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 simplificador)"에 의해 만들어진 이분법적 세계와는 차별화된 문학적 여정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다.(Sales Salvador 2004, 314)[2] 그의 첫 단편집인 『물Agua』(1935), 『야와르 축제Yawar fiesta』(1941), 『깊은 강 Los ríos profundos』(1958)을 거치면서 그의 원주민 세계에 대한 관점은 일정하게 변화를 경험한다. 『물』에는 께추아 세계와 서구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따르면서 인디오로 변하기를 원하는 백인 소년 삶의 에피소드들이 그려지고 있다. 첫 번째 소설인 『야와르 축제』에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축제를 배경으로 스페인적인 것과 원주민적인 것의 대립과 원주민 생활방식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이분법적인 세계라는 구도가 해체될 조짐을 보여준다. 『깊은 강』에서 주인공인 에르네스또(Ernesto)는 원주민 세계에 대한 충실도를 드러내지만, 이전 작품과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즉 현실 속에서 그의 작품을 지배하던 이분법적 세계관이 이 작품에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변

2) 아르게다스에 대한 전기적인 요소와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Sales Salvador (2004)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화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사람*El sexto*』(1961)은 자신의 투옥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에서 감옥은 페루사회에 대한 상징으로 등장하고, 이 작품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는 안데스가 아닌 페루 전역을 아우르는 것으로 확대된다. 또한 외부 경제적 자본주의의 영향이라는 보다 글로벌 한 층위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페루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사유되기 시작한다. 『모든 종족들*Todas las sangres*』(1964)에서 이런 문제의식은 최고조에 달하고, 비록 원주민의 관점을 취하고는 있지만 페루의 총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1971년 출판된 『위 여우와 아래 여우 *El zorro de arriba y el zorro de abajo*』는 원주민 세계로 대표되는 내륙 세계가 근대 세계로 특징되는 해안 문화에 대한 적응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께추아 전통과 근대 경험 사이의 복합적인 절합은 "소설장르와 그 구성유소들을 "께추아하기 위한" 절망적인 노력으로 간주된다.[3)]

살펴본 것처럼, 께추아 원주민 세계에 대한 관심은 그의 작품에서 중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께추아 세계와 근대 세계라는 이분법적 세계로 고착되지 않고 새로운 문학적 형식을 찾아내고자 하는 '문화접이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꼬르따사르와 아르게다스의 논쟁을 단순하게 지역적 태도와 보편적 태도 간의 대립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서사 기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원주민 문화의 영향을 묻는 논쟁에서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극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의 입장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3) Martin Lienhard를 재인용했다(Sales Salvador 2004, 315).

## Ⅲ. 논쟁의 내용

아르게다스와 꼬르따사르 사이의 논쟁의 시작은 1967년 5월 10일자 편지로 당시 ≪까사 데 라스 아메리까스Casa de las Americas≫의 대표자이자 쿠바 혁명 체제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였던 로베르또 페르난데스 레따마르가 그에게 요청한 '혁명 이후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청탁에 대해 쓴 공개편지(「로베르또 페르난데스 레따마르에게 쓴 편지 Carta a Roberto Fernández Retamar」)에서 시작된다.[4] 여기에서 그는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자발적인 망명과 이것이 그에게 준 장점, 그리고 더 나아가 지식인에게 있어 망명의 장점을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이 태어난 영토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 즉 영토적 거리는 지식인이 그 현실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데 있어 보다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르게다스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페루의 『아마루Amaru』 6호(1968년 4, 5월)에 후일 『위 여우와 아래 여우』 *de arriba y el zorro de abajo*의 일부분이 될 글을 기고하게 된다.("Respuesta a Julio Cortázar") 1968년 5월 18일자로 기록된 이 글은 꼬르따사르가 편지에서 보여준 문학과 지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한 그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영토성, 전문작가, 망명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꼬르따사르의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반론이 1969년 4월 7일자 스페인어판 『라이프』지에 인터뷰 형식("Entrevista de Rita Guibert")으로 실린다. 이 글에 대한 아르게다스의 재 반박이 "훌리오 꼬르따사르의 관점에 대한 불가피한 코멘트"라는 제

4) 이 편지는 "Acerca de las situación del intelectual latinoamericano"라는 제목으로 *Casa de las Américas*, 45호(11/12, 1967)에 실린다.

목으로 다시 페루의 『꼬메르시오*Comercio*』(1969.6)에 실리게 되면서, 당대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두 지식인 사이의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지식인에 대한 입장 대립은 지속된다.

## 1. 지역성 혹은 토속주의(telurismo)를 둘러싼 입장 차이

이 논쟁을 통해서 꼬르따사르는 자신이 프랑스에 정착하게 된 이유,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이자 작가로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이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던 「편지」에서, 그는 1951년 아르헨티나를 떠나와 파리에 체류하고 있던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자신의 나라에서 떠나와 구세계에 자리 잡은 작가가 오히려 라틴아메리카에서 글을 쓰고 있는 작가보다 더 효과적으로 라틴아메리카적인 특성의 진정한 뿌리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역적 정서 혹은 지역적 요소를 강조하는 토속주의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낯설고 심지어 촌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 자신의 나라를 떠난 작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전망 속에 위치하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감정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보다 지구적이 되고,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인간과 역사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라틴아메리카 특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구세계의 보다 보편적인 관점 속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내 책들이 야기한 반향은 하나의 문학을 제안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났는데, 이 문학의 뿌리는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복합적인 경험에 의해 강화되었다(Croce 2006, 169-171).[5]

5) 이 논쟁의 일차적 문헌은 Marcelo Croce(2002)를 참고했다. 원 저자와 출전을 따로 밝히지 않고, 이 글에서는 이 텍스트를 인용의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꼬르따사르의 입장은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당대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사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던 아르헨티나에서 문학적 세례를 받은 자신의 문학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꼬르따사르의 입장에 대해 아르게다스는 "우리 모두는 촌사람들이에요, 훌리오 씨, 개별 나라에서 지방 사람들이고 또 초국적인 차원에서도 지방에 사는 사람이에요"라고 반박문에서 대응한다(Croce 2006, 193). 이러한 아르게다스의 반론은 라틴아메리카적인 글쓰기란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사이의 이항 대립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이항 대립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은 지역적인 것에 대한 천착을 통해서, 보편성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아르게다스의 견해에 대해 꼬르따사르는 일 년 후 스페인어판 『라이프』지에서 아르게다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페네로페 그 자신보다도 오히려 율리시즈에 대해 더 잘 아는 레사마 리마(Lezama Lima)와 같은 지방 사람이 된다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이 께나의 오음계로 시작해서 오음계로 끝나는 민속적 취향의 지방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반론한다(Croce 2006, 193). 다시 말해, 지역성에 근간하면서 보편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입장은 지지하지만, 아르게다스의 입장은 지역성에 고착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꼬르따사르의 입장은 서구의 서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그의 문학관에 비춰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전통적 요소에서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미래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했던 아르게다스의 입장과는 차별된다. 아르게다스는 자신과 같은 인디헤니스따 작가들을 전통 고착적, 혹은 퇴행적으로 비판한 꼬르따사르에 대해 재 비판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아르게다스는

자살하기 6개월 전에 「홀리오 꼬르따사르의 입장에 대한 불가피한 코멘트 Un inevitable comentario a unas ideas de Julio Cortázar」(*Comercio*, 1969. 6. 1자)를 쓴다. 여기에서 아르게다스는 "현대 께나(quena)는 오음계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꼬르따사르의 입장을 비판한다(Croce 2006, 199). 즉, 자신의 지역성에 대한 강조가 인디헤니스모라는 특정 주제와 안데스라는 전통 공간에 폐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성에 대해 개방되어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꼬르따사르는 "때때로 진정으로 풍경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자주 초국적인(supranacional) 관점이 국가적인 특성(lo nacional)의 본질을 예리하게 포착하게 해준다"라는 진술을 통해 지역적 문제에 고민하고 있던 아르게다스의 반발을 야기했다(Croce 2006, 192). 더 나아가 "해결책이 단지 특수한 형태들로 존재하는 하나의 문제를 일반화로 이끌어가는 것은 잘못이다"(Croce 2006, 192)라는 진술을 통해, 전통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서구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그의 입장은 아르게다스가 중시하는 지역성, 더 나아가 작가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진술로 이어진다. 자신의 자발적인 파리 망명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대 인디헤니스모 문학이 가지고 있던 지나친 토착주의에 대한 '보편주의적' 반론인 셈이다. 결국, 작가가 그려내고자 하는 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중요한 것은 이 '망명자들'이 자신들의 독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책은 자신의 대지와 그 땅의 인간들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존하고, 고양하고, 완성한다는 것이다. [...] 토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작가가 속해있는 민중이 자

> 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작품을 쓴다는 것이다. 비록 그 책 속에서 항상 이 민중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전통에 대해 늘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토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동일시 이전 혹은 그 수면 하에 존재하는 것이다. [...] 토착적인 것의 정서는 하나의 제한이 아니라, 하나의 개방으로서 의미를 갖는다(Croce 2006, 192-193).

토착성에 대한 꼬르따사르의 이러한 개방적인 주장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가의 물리적 위치가 작가가 그려내려는 현실과 이격되어 있는 것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과 조응하고 있다. 물리적 거리가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유와 성찰에 적절한 조건과 적절한 맥락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아르게다스가 대응하고자 했던 점은 바로, 토속주의에 대한 그의 언급이다. 꼬르따사르는 토속주의가 갖는 한계를 다음과 같이 거칠게 비판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토속주의는 심각하게 낯설고, 편협하고, 심지어는 촌스럽기까지 하다. 나는 이것을 다양한 이유로 인해 문화와 역사에 대해 종합적인 인식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지역적인 과업에 쏟아 붓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고 이 점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항상 문화주의적 오류로 인해 보편적 가치 자체에 맞서 지역적인 가치를 고양하는 경향이 있다. 토착주의가 이것에 집착하는 작가들의 신조로 변모할 때, 부정적인 내셔널리즘의 최악의 진전에 대한 서론처럼 보인다. 이 과정은 논리적인 반발로, 모든 타자에 대해 가장 무분별한 비하의 여정을 시작할 정도로 자신의 것에 대한 고양으로 이어진다(Croce 2006, 171-172).

이와 반면에 아르게다스는 자신의 땅에 뿌리박고 사는 것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르게다스와 꼬르따사르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성장한 문화적 기반, 또 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바라보는 문학관, 당대 정치현실을 이해하는 정치적 태도 등 다양한 차이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논쟁은 토착주의 대 코즈모폴리터니즘, 지역주의 대 보편주의, 원주민주의 대 유럽주의 간의 대립이라는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오랜 대립 구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논쟁은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다시 제기하게 된다.

## 2. 근대적 서사 양식과 작가

두 작가의 다양한 입장 차이는 글쓰기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이견으로 이어진다. 이는 붐 소설의 형식을 둘러싼 즉, 라틴아메리카에 있어 문학 근대화의 갈등적인 형식들과 관련되어 있다. 붐 소설의 서사 양식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붐 소설이 라틴아메리카 소설사에서 주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단순화 하자면, 꼬르따사르의 작품들은 붐 소설의 주류로 평가받게 되는 반면 아르게다스는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붐 소설의 서사 양식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Noriega Bernuy 1994, 299).

꼬르따사르가 서구의 복합적인 소설 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면, 아르게다스는 신화와 역사의 분리, 인물과 작가 사이의 분리를 극복하면서 근대적인 안데스 소설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Noriega Bernuy 1994, 299). 즉, 안데스의 전통적인 이야기 양식을 통해 서구 소설 장르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모든 의미에서 혼종적인 소설양식을 모색

한 것이다. 그는 테크닉에 있어, “유럽인들이 우리를 능가하고 지배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술에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에 대해서 배우게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주 말하곤 했다. 이런 서구의 서사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는 결국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근대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목표에 대한 차이로 이어진다. 당대 현실을 포착하고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아르게다스는 구문론이고 어원론적인 관점에서 스페인어를 ‘케추어화’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 반해, 꼬르따사르는 영어와 불어 등 외래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Noriega Bernuy 1994, 300).

같은 맥락에서 꼬르따사르에게 있어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독창성은 서구의 다양한 문학 기교와 문화 요소들을 수용하고 변용하는 창조적 수용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럽지향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는 꼬르따사르의 입장에 반해, 아르게다스는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독창성은 “안데스 민중들의 몇몇 전통 축제에 남아 있는, 허영심과 세속적 욕심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그곳”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꼬르따사르가 주장하는 문학적 태도는 “세속적 욕구를 숨기고 있으며, 독창성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문학적 독창성은 서구적 요소의 개입에 대해 원주민적 전통의 저항 및 포용을 말하는 것이다(Noriega Bernuy 1994, 305).

이런 서구의 서사 기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독창성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자연스럽게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꼬르따사르가 서구의 서사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작가 역시 근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반면, 아르게다스는 이를 ‘세속적 욕구’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이처럼 그는 붐 소설이 가지

고 당시의 상업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작가를 근대적 의미의 직업인이 아니라, 소명적인 지식인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전문적인' 작가로 자리매김 하는 꼬르따사르는 글을 쓰는 행위를 하나의 일이자 과제로 간주한다. 즉 하나의 직업이라는 것이다. 이런 자기 설정은 파리 체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작품이 보다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판단과 함께, 자신이 이런 보편성을 표현하는 전문적인 작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아르게다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내부'의 관점을 모색하고, "비 전문적인 작가"로 스스로를 위치지우고 '시골사람'임을 주장했다.

> 소설과 시를 쓴다는 것은 직업이 아니다![...]사랑, 즐거움 그리고 필요로 인해 우리들은 글을 쓴다. 판매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구상하는 행위는 내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전문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처럼 보인다.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살고 있다. 그리고 혼돈과 질서를 해석하기위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Corce 2006, 182-183).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보다 명확한 방식으로 아르게다스는 당대 라틴아메리카 붐 소설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인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아르게다스와 꼬르따사르의 입장은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 소설이 붐 소설이라는 단일한 색인으로 묶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당대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두 가지 형식, 즉 가장 유럽적인 것과 가장 유럽적이지 않는 형식이 서로 긴장하면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두 흐름의 배경에는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근대화라는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통과 유럽적 형식들을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인 고민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문학이 가지고 있던 당대의 문제의식을 풀어나가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이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의 창조로 이어지고, 1960년대의 특징적인 작가로 위치하게 된 것이다.

## 3. 화해: "작가-나무"와 "작가-새"

아르게다스가 자살로 생애를 마치게 됨에 따라, 이 논쟁이 갖는 의미를 보다 온전하게 만들 책임은 꼬르따사르에게 남게 된다. 꼬르따사르는 이 논쟁의 의미를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의 갈등과 충돌이라는 관점보다는, 서로 다른 두 입장의 긴장과 공존이라는 관점으로 정리하게 된다. 꼬르따사르는 아르게다스와의 차이를 극단화하는 것은 하나의 오해라고 설명하면서 이 논쟁의 의미를 완화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둘 사이의 논쟁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 있다.

작가-나무들(escritores-árbloes)이 있다. 룰포(Rulfo), 레사마 리마(Lezama Lima), 그리고 물론, 존경할만한 아르게다스가 있다. 또한 작가-새들(escritores-pájaros)이 있다. 바르가스 요사(Vargas Llosa), 옥타비오 파스(Octavio Paz), 나. 뿌리에 의존할거냐 아니면 날개에 의존할거냐, 정주자 혹은 유목민... 이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6]

꼬르따사르가 말한 '작가-나무들'은 뿌리에 기대고 있는 작가들을 지칭한다. 즉, 정주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작가-새들'은 날개에 의존하고 있는 다시 말해 유목민을 말한다. 더 나아가 작가-나무들은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에서 양분을 얻는 사람들이고, 작가-새들은 양분을 다른 공간에서 얻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분리되어 있는 것

6) Julio Cortázar, "Cortázar(Entrevista)", Plura, 7(1973), pp.52-54. Ostria(2000), p.426에서 재인용.

이 아니라, 서로 영향관계에 있다. 이런 영향관계가 바로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 두 흐름은 라틴아메리카에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유럽지향적인 태도와 지역성을 강조하는 태도로, 유럽이라고 하는 보다 큰 흐름에 종속되어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존재적 조건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객관화하고 드러낼 필요성 사이의 긴장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흐름의 긴장과 공존이라는 이중성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본래적 특징이자 생산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라고 간주해 왔던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창조적 과정에 서로 다른 문화적 입장들이 내재함을 보여준다 (Ostria 2000, 426).

이 논쟁이 갖는 의미를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해 두 작가가 가르시아 마르께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에 주목해보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층위에서 서로 다른 문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두 명이 일정하게 공통된 합의를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시아 마르께스에 대한 평가이다. 꼬르따사르의 경우 가르시아 마르께스의 작품 속에서 포크너나 콘라드 같은 서구의 작가들의 흔적을 읽어내고, 그의 독창성은 이러한 다양한 서구적 서사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 있다고 파악한다. 이에 반해 아르게다스는 가르시아 마르께스의 작품은 서구의 서사 전통과 완전히 결별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구전 전통을 완벽하게 복원한 것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Noriega Bernuy 1994, 306).

이러한 가르시아 마르께스에 대한 평가를 놓고 살펴본다면, 꼬르따사르와 아르게다스의 논쟁은 일정 부분 과장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쟁이 오해라거나 혹은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기에 따라서 아르게다스와 꼬르따사르로 대표되는 입장들은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그 반면에 유사성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런 시기적 차이는 라틴아메리카가 겪는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지만,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흐름이 긴장과 공존을 통해 풍요로운 문학적 자장을 만들어 왔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꼬르따사르와 아르게다스의 논쟁을 통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사이의 라틴아메리카 지적 풍경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의 문학관을 살펴보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문화 지형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조점으로 작동한다. 앞에서 말한 바처럼, 이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이 오해라거나 혹은 무의미하다는 힐난을 받기도 한다. 또한 시대 분위기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확대 재생산 측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가에 의해 열정적으로 표현된 이견은 논쟁 배경에 존재하는 뿌리 싶은 문화적 토대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다. 즉, 라틴아메리카 문학 세계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글쓰기 양식의 차이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 도시에 존재하는 두 가지 입장의 차이, 즉 유럽 지향적 태도와 지역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주된 모티브를 변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안데스 사회와 아르헨티나라는 시공간적 배경에 따라 보다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 대립은 개인적인 층위의 의견대립이 아니라, 대립하면서 공존해온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대립구도가 쿠바 혁명과 붐이라는 시대사적 맥락 속에서 그 속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Croce, Marcela(ed.)(2006), *Polémicas intelectuales en América Latina: Del "meridiano intelecetual" al caso Padilla(1927-1971)*, Buenos Aires: Simurg.

Escobar, Alberto, "Relectura de Arguedas;dos proposiciones", http://www.andes.missouri.edu/andes/Arguedas/ae_relectura2.html (2010.03.20)

Gómez, Susana(2003), "Interlegibilidad y ethos político: Tránsitos ensayísticos de las polémicas políticas de J. Cortázar", V$^{O}$ Congreso Internacional Orbis Tertius de Teoría y Crítica literaria, 13 al 16 de agosto de 2003, La Plata, http://www.fuentesmemoriaahce.unlp.edu/ trab_eventos/ev.24/ev.24.pdf (2010.03.15)

Kohut, Karl(1985), "El escritor latinoamericano frente a los problemas y conflictos de la acualidad", *Inti:Revista de Literatura hispánica*, 22/23(1985).

_____(2000), "Las polémicas de Julio Cortázar en retrospectiva", *Hispámerica*, 29:87, pp.31-50.

Martin, Gerald(1984), "Boom, Yes; 'New' Novel, No: Further Reflections on the Optical Illusions of the 1960s in Latin America",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3:2, pp.53-63.

Moraña, Mabel(2006), "Territorialidad y forasterismo: la polémica Arguedas/Cortázar revisitada", in Sergio R. Franco(ed.), *José María Arguedas:*

*hacia una poética migrante*, Pittsburgh: Instituto Internacional de Literatura Iberoamericana.

Noriega Bernuy, Julio(1994), "Arguedas-Cortázar:Polémica entre zorros y camaleones", *Estudios de lengua y cultura amerindias II*, A*ctas de las IV Jornadas Internacionales de Lengua y Cultura Amerindias*, Volume 2, Valencia.

Ostria, Maurio(2000), "Sistemas literarias latinoamericanos: La polémica Arguedas/Cortázar treinta años después", in R. Cánovas y R. Hozven(eds.), *Crisis, apocalipsis y utopías*, XXXII Congreso Internacional de Literatura Iberoamericana, Santiago: P. U. Católica de Chile.

Rodríguez López, Jéssica(2004), "Dos formas de asumir lo maravilloso americano: Alejo Carpentier y José María Arguedas", in Congreso Internacional "El siglo de Alejo Carpentier", La Habana.

Sales Salvador, Dora(2002), "Traducción culturalen la narrativa de José María Arguedas: Hervores en la encrucijada de lenguas y culturas", in I Congreso Internacional de Traductores e Intérpretes/II Congreso Nacional de Traductores, Lima.

_____(2004), "Arguedas y la transculturalidad", in Magdalena León Gómez (ed.), *La literatura en la literatura. Actas del XIV Simposio de la SELGYC,* Madrid: Centro de Estudios Cervantinos.

▌논문투고일자: 2010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0년 6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2일